



티눈약

요약

티눈약은 각질을 연화시켜 티눈을 제거하는 약이다. 티눈은 손, 발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각질이 과다 증식되는 질환이다. 굳은살과 비슷하지만, 굳은살은 비정상적인 압력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티눈은 동일한 힘이 좁은 부위에 집중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연화제인 살리실산 단일제나 젯산과의 복합제를 도포할 수 있다. 또는 냉동 레이저 치료를 실시한다.

외국어 표기

drug for corn(영어)

동의어: agent for corn

유의어·관련어: 티눈액, 티눈밴드, 티눈고

티눈

티눈은 손과 발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작은 범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 모양으로 피부에 박혀 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누르면 아픈 특징이 있고, 티눈을 꺾었을 때 중심핵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바닥과 발가락에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부 안쪽으로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과다하게 각화된 중심핵을 형성하여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한다. 티눈은 굳은살과 비슷하지만, 굳은살은 비정상적인 압력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티눈은 동일한 힘이 좁은 부위에 집중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티눈은 중심부에 단단한 핵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질환 모두 구조적인 변형이나 생화학적인



결절이 있는 발 부위에 잘 발생한다.

티눈에는 연성 티눈과 경성 티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경성 티눈은 발가락의 등 쪽이나 발바닥에 주로 발생하며 표면에 윤이 나고 상층부를 깎아내면 병변의 가장 조밀한 부위에서 핵이 나타난다. 바로 이 핵의 하부에서 감각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무디고 거북한 감각이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 연성 티눈은 발가락 사이에 잘 발생하며 땀에 의해 짓무르는 경우가 많아 부드럽고 축축해져 하얗게 보인다. 보통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잘 생긴다.

약리작용

티눈약으로는 살리실산 단일제나 젯산과의 복합제를 사용한다. 피부 연화작용이 있는 성분으로서 티눈뿐만 아니라 굳은살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 제형으로는 액제, 경고제* (일반 경고제, 밴드 형태)가 있다. 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서 생기므로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병변이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 교정 신발이나 신발에 까는 패드로 원인을 완화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에 핵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연성 티눈의 경우에는 절제술이 효과적이며 뼈가 돌출되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적으로 뼈의 돌출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연성 티눈일 경우 알코올과 국소마취제를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 경고제: 약물에 물이나 식물성 기름을 부어 달여서 농축시킨 약제로 고약이라고도 표현한다. 보통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고, 약간 뜨겁게 하면 부드럽게 된다. 병소에 적용 시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작용을 나타내며 타박상, 신경통, 관절염, 종기 치료제 등에 쓰인다.

종류

티눈약은 살리실산 단일제의 경우 일반 경고제와 밴드 형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신신티눈고®, 신신티눈밴드® 등이 있다. 살리실산과 젯산 복합제의 경우 일반 경고제, 액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고닐고포르테경고제®, 신신티눈액® 등이 있다.

효능·효과

티눈, 굳은살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용법

액제

1일 1~3회 질환 부위에 바른다. 약을 사용한 후에 질환 부위에 하얀 필름층이 형성될 수 있다. 다시 약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문지르거나 벗겨내어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3~4일간 사용한 후 더운물에 환부를 담가 부드러워진 각질을 벗겨낸다. 이 약의 1일 최대 사용량은 2 g이며, 1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경고제

반창고 가운데에 약고*가 있는 약제로서, 약고 부분을 질환 부위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약고: 약물이 저장된 상태를 말한다. 보통 부직포에 약물이 도포된 상태이다. 약물 보호용 부직포와 고정용 반창고가 함께 이루어져 있기도 한다.

금기

- 얼굴, 눈 주위, 점막, 목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이나,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점 또는 사마귀, 털이 있는 사마귀 및 생식기 부위의 사마귀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영·유아, 당뇨병 환자, 혈액순환장애 또는 말초신경병증 환

자는 사용 시 주의한다.

- 신부전 환자는 살리실산염이 피부에 대량 흡수될 경우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피부에 장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 건강한 피부에 부착되면 그 부분이 하얗게 연화되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부 주위의 건강한 피부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부착되었을 경우 즉시 닦아낸다.
- 화농성 피부염(끓음), 습윤(습기 참), 미란(긁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치료한 후 약물을 적용한다. 광범위한 질환 부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경고제의 경우 약물을 부착한 채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고가 녹아서 없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

티눈약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피부염, 피부궤양, 피부 국소자극, 접촉성 알레르기 등이 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작용

- 당뇨병 치료제인 설포닐우레아와 병용 시 설포닐우레아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혈당저하 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 항암제인 메토틱렉세이트와 병용 시 메토틱렉세이트의 배설을 지연시켜 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다른 국소 적용 약물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아, 청소년 사용

유·소아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대량을 광범위한 부위에 적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영아(젖먹이)는 더욱 신중히 사용한다.

임부·수유부 사용

- 살리실산 성분을 경구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기형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티눈약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외용제이지만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치료상의 유의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살리실산이 모유로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수유부가 살리실산 성분 티눈약을 사용할 경우 유방 부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